

철밥통 추방 ... '공직사회 적폐' 도려낸다

〈오랫동안 쌓인 폐단〉

복지부동·무사안일·비위 공직자 직위해제·수사의뢰

감찰팀, 전남도·시군의회 해외연수 직원들 조사 마쳐

안전행정부의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공직사회의 적폐(積弊)를 도려내고자 전국 시·도에 '고강도 감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해 감사 결과와 앞으로 공직사회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그러나 재난 담당 정부부처로 초기대응에 실패한 안행부가 지자체에는 신속하게 감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 굵직 않은 시선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자신들의 치부는 감추고 만만한 지자체를 손 본다든 것이다.

1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안행부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복지부동, 무사안일, 비위 공직자에 대해 특별점검을 하라고 전국 시·도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점검분야는 크게 ▲복지

부동·무사안일 ▲기강해이 ▲공무국외여행 등이다. 복지부동·무사안일 분야 점검대상은 산하단체와의 유착 등 국민불신 야기 행위, 안전관련 무사안일·복지부동으로 국민안전 위협하는 업무행태, 기관 간 협업 미흡 등 책임 떠넘기기 사례, 소극적인 업무처리 태도 및 민원처리 지연·방치 행위, 비정상적인 관행의 온전 등 무사안일 사례 등이다.

기강해이 분야 점검대상은 부적절 처신 및 언행으로 인한 불의 야기 행위, 호화행사, 과도한 음주·가무, 부적절한 골프, 외유성 해외출장, 금품·향음 수수, 공금 횡령, 부정 정탁·알선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등이며, 공무국외여행 관련해서는 불요불급한 해외출장 등 공무국외여행 재검토, 계획된 공무국외여행 타당성 및 불가피성 재검토·조정 등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는 감찰단을 편성해 본청 실·과·소, 자치구,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감사를 실시해 적발 내용과 기관명, 공직자 성명을 작성해 안행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안행부는 집중감찰이 필요하면 '기동감찰단'을 가동하고 적발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징계 등을 요구하고 직위해제와 수사의뢰를 병행하기로 했다. 지자체 내부에 상시 감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문제가 있을 경우 직접 감사 및 감찰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전남도에는 세월호 참사 후 해외연수에 나선 도의회 및 시·군의회 사무처 직원 감

사를 위해 안행부 감찰팀 2명이 내려와 조사를 마치고 지난달 30일 돌아갔으며, 현재는 감사원에서 감사팀 4명을 보내 공직 기강 분야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안행부의 이 같은 지시가 효과적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미 감사 및 감찰이 수시로 진행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생색내기'에 그칠 수 있으며, 세월호 참사 당시 대응에 나섰던 중앙부처의 잘못을 따지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한 공무원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 공직사회가 국민적 불신과 원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중앙부처 기관들이 재난 대응에 실패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며, 이들 기관들을 먼저 감사하고 감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41 달출몰 07:50
해질름 19:19 달지름 22:09

진도해상 '구름많음'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크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구름많음	11/25	보성	구름많음	7/24
목포	구름많음	10/21	순천	구름많음	11/26
여수	구름많음	14/21	영광	구름많음	10/24
나주	구름많음	7/25	진도	구름많음	10/23
완도	구름많음	12/24	전주	구름많음	10/27
구례	구름많음	7/27	군산	구름많음	10/24
강진	구름많음	8/24	남원	구름많음	7/27
해남	구름많음	9/24	흑산도	구름많음	12/19
장성	구름많음	7/24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서	0.5~1.0	남서	0.5~1.0
남부	남서	0.5~1.5	남서	1.0~2.0
남해	남서	0.5~1.0	남서	0.5~1.0
서부	남서	0.5~1.5	서북서	1.0~2.5

◇생활지수

식중독	30
운동	70
빨래	9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4:12	09:18	16:08	21:20
여수	10:49	04:44	23:19	19:48

◇주간 날씨

3(토)	4(일)	5(월)	6(화)	7(수)	8(목)	9(금)
☀	☁	☀	☀	☀	☀	☀
10/24	13/20	11/24	11/25	12/25	14/23	12/26

현장학습·수련활동 사고

광주·전남 5년새 2.5배↑

세월호 참사로 수학여행 안전성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과 수련활동 등에서 발생한 사고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흥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1일 공개한 '2009~2013년 수련활동, 현장체험학습 등 발생 사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총 8119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09년 1004건, 2010년 1410건, 2011년 1610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2012년에는 2039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전년보다 소폭 늘어난 2056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5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이중 교외 활동으로 인한 사고가 7107건에 달해 전체 사고의 87.5%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광주·전남에서도 2009년 64건, 2010년 90건, 2011년 120건, 2012년 158건, 2013년 155건 등으로 5년 사이 2.5배 늘었다.

박 의원은 "문제는 이처럼 해마다 학교 밖 활동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증가하는 데도 교육부가 2010년 10월 들어서야 운영 매뉴얼을 마련했다는 것"이라며 "그나마 매뉴얼도 아예 없었다가 2008년 수학여행 안전관리를 지방교육청으로 떠넘긴 후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뒤늦게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jpark@kwangju.co.kr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1일 광주시청에 마련된 세월호 침몰사고 추모분향소에서 희생자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미안함이 적혀있는 노란리본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119 신고전화도 위치추적 급하다

관련 법안 국회상정 여야 갈등으로 미뤄져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119 신고전화에 대해서도 정확한 위치추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관련 법안 상정이 여야 갈등의 여파로 미뤄졌다.

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와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미방위는 전날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 등 계류법안 37건을 일괄 처리했지만 지난달 11일 회부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위치정보보호법)은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미방위 소속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대

표발의한 이 법안은 119 신고전화에 대해서도 위성정보(GPS) 기능을 강제로 활성화해 정확한 위치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112 범죄신고전화는 사용자가 휴대전화 상태에 상관없이 GPS 정보 추적이 가능하지만 119 신고전화는 이용자가 GPS 기능을 활성화시켜 놓은 상태에서만 추적할 수 있다.

119 신고자의 휴대전화에 GPS 기능이 켜져 있지 않을 때에는 기지국 정보로만 추적이 가능하다. 기지국 정보 추적은 오차가 1~2km에 이른다.

이번 세월호 참사 때도 최초 신고자의 119 신고 후 전남소방본부 119상황실은 목포해경에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는 진도 조도 서거차도리"라고 전달했지만,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없었다.

때문에 119 신고전화에 대해서도 필요할 때 GPS 추적이 가능하도록 한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주목을 받았지만 참사 이후 열린 상임위에서 여야는 관련 법안 상정을 미뤘다. 그간 여야갈등으로 2개월간 파행을 겪은 미방위는 방송법 등 기존에 논의된 법안만 이날 처리하고, 신규 법안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박지경기자jpark@kwangju.co.kr

광주·전남 행사·축제 무더기 취소·연기

광주, 어버이날 행사 등 취소

담양 대나무축제 6월로 연기

세월호 참사로 전 국민적 애도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광주·전남에서 5~6월 개최하려던 행사와 축제가 무더기로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다.

1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광주 동구청과 서구청은 이날 개최 예정이었던 동구민들의 날과 서구민들의 날을 취소했다.

광주시는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어버이날 행사, 입양의 날 행사,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 등 5건의 행사를 취소했다.

광주시와 각급 산하기관은 또한 광주세계아리랑축전 기념공연, 소방본부 체육행사, 근로장애인 어울림대회 등 이날에 열릴 공연과 체육행사 등 30여건을 무기한 기했다.

시와 산하기관은 이어 무등산 정상 개방과 광주자원봉사박람회 등 6월에 열릴 각종 행사 8건도 무기한 연기했다.

전남도와 일선 시·군도 축제와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다.

함평군과 함평군축제추진위원회는 2일부터 11일까지 열릴 예정이었던 제16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담양군은 이날부터 6일까지 축북원과 관방제일 일대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대나무축제를 6월로 연기했다. 담양군은 차별화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곡성군도 오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열리는 제4회 곡성세계장미축제를 전면 취소했다. 장성군은 2일부터 4일까지 열릴 예정이었던 지역 대표 축제인 흥감동 축제를 올해는 열지 않기로 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與, 국회 재난안전관리 특위 구성 추진

새누리당은 1일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국회 차원의 재난안전관리 특위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세월호 사고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해 오늘 당 '국가재난안전 확대최고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야당과 협의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재난의 사전 예방 측면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면서 "당 부설 여의도연구원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 '제2의 세월호'가 어디에 있는지 점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jpark@kwangju.co.kr

창사 62주년

지역경제의 미래를 선도하겠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목포지부	목포수산업협동조합	목포농산물도매시장	(주)도박시정	(유)형김중식	그린사무현기	(주)대하평	(주)행남자	씨월드고속훼리(주)	예총목포·신안지회	신안관광(주)신안비치호텔	(주)상그리아비치호텔	가산토건(주)	남안신도시근화옥암베아채	한국전력목포지사	한국농어촌공사목포지사	목포농업협동조합	목포원에농협협동조합
임직원일동	임직원일동	임직원일동	박시정	김중식	대표이사	대표이사	대표이사	대표이사	지부장	임직원일동	임직원일동	대표이사	대표이사	임직원일동	임직원일동	임직원일동	임직원일동